

“여수 excellent”... 박람회 유치 성공

(탁월하다)

■ BIE 총회 폐막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19일 끝난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1차 총회는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총회에서 공개된 유치 후보도시에 대한 현지 실사결과 보고서에서 여수는 ‘탁월하다(excellent)’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이 제안한 ‘여수프로젝트’가 회원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때 문이다.

‘엑셀러نت’라는 표현은 경쟁도시인 탕헤르(모로코)와 브로츠와프(폴란드)의 실사 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수가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수는 국제대회 개최 역량, 가치 있는 인류유산을 남길 잠재력, 시의적절한 주제와 개최 의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3개 후보도시 가운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사보고서는 여수의 취약점으로 꼽혀왔던 교통·숙박 인프라에 대해서는 ‘잠재가능성이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모로코의 탕헤르는 아프리카 대륙, 이슬람 국가에서 열리는 첫 박람회라는 점,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최근 유럽 연합에 가입해 사회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실사결과 보고서는 후보도시의 박람회 개최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BIE가 사전 검증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지만, 보고서 표현에 있어 경쟁국 간 우열이 드러나 최종 개최지 선정에

역량·의지·주제, 실사평가 최고 점수 3천만弗 출연 ‘여수프로젝트’ 큰 호응

■ 2012 세계 박람회 후보 도시별 장단점

도시	여수(한국)	탕헤르(모로코)	브로츠와프(폴란드)
장점	- 국제대회 개최 역량 - 시의 적절한 주제 - 정부-지자체-주민의 높은 유치 열기	- 아프리카-이슬람권 첫 박람회 - 지정학적, 문화적 연관성 높고 유럽과 근접	- 유럽연합(EU) 가입해 사회 변화 모색 - 주제 ‘세계경제에서의 여가 문화’ 관심
단점	- 교통·숙박시설 부족	- 불안한 국내 치안	- 낮은 유치 열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총회 마지막날 진행된 한국의 프리젠테이션도 여수박람회 유치를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환경 및 해양과제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지원할 ‘여수프로젝트’ 추진을 위

해 3천만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깜짝 제안’은 회원국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유치를 기어올 것으로 현지에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이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공동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여수 선언’ 채택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BIE 회원국들은 지난 18일 공개된 BIE 집행위의 개최 후보지 실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이날 3국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토대로 지지국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총회장 주변에서는 한국의 인상적인 행사준비 소개 및 제안이 여수박람회 유치를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등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시급한 환경·해양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여수 프로젝트’에 1천만 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2천만 달러를 출연,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박지영기자 unipark@kwangju.co.kr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41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등 정부 대표단이 지난 18일 낮(현지시간) BIE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여수엑스포 홍보관 앞에서 유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조종호 외교부 1차관, 박준영 전남지사, 강무현 해수부장관, 한 총리, 김재철 유치위원장. /연합뉴스

광주區경제 다시 잘 때 됐다

4 區간 협의체 시급

주민대표·정치인 참여 민관 조정협 서둘러야

광주시내 자치구간 인구·재정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간 경제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경제조정이 이뤄지기 까지 난관은 산적해 있다.

광주 동구는 구간 경제 조정에 구의 운명을 걸고 있다. 지난 2004년 경제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 희망 대상지인 북구 풍향·두암3동(3만2천명)의 주민들을 설득중이다. 그러나 동구가 북구와 공동으로 구성하려던 ‘경제조정협의체’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구간 경제조정은 광주는 물론 부산시와 대구시, 인천시 등 전국 광역시들의 공통된 현안이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자치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구 감소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 경제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 동구보다 인구(11만2천명)가 적은 자치구는 대구 중구(7만9천명), 인천 동구(7만6천명)·중구(9만2천명), 부산 중구(5만1천명)·강서구(5만3천명)·동구(10만7천명) 등 6곳이 나온다. 이들 자치구도 각자 입장과 정치인들의 이해 관계로 인해 수년 동안 경제 조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전국적으로 구간 경제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경기도에서 단 한건 있었다. 2005년 경기도 군포시와 의왕시는 접경지에 있는 동 단위 지역을 맞바꿨다. 인구가 필요했던 군포시는 의왕시에 있던 아파트 지구를 편입시키는 대신, 공장 부지를 의왕시에 제공했다.

광주에서도 비록 대상 면적이 5천평에 불과했지만 경제조정 사례가 있다. 2003년 동림2지구 택지 조성 때의 일이다. 동림1·2지구의 대다수 면적이 북구에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한 서구가 5천평의 택지를 북구에 양보한 것이다.

동구는 1980년 북구 개칭 당시 8개 동을 떼어준 특수 사정을 감안해 북구로부터 풍향동·두암3동을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광주지역 5개구 가운데 가장 큰 인구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구와 북구는 인구 차이 만큼 행정서비스와 저소득층 복지지원도 격

차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행정구역(광역)에서 발생하는 행정 및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구와 북구의 경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경제 조정의 필요성은 구간 불균형이 일차적인 원인인 만큼 자치구 문제지만 광역행정 차원에서 광주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시를 중심으로 해당 구인 동·북구의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관 경제조정협의체 구성만

이 경제조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지역 구의원과 시의원 등 관련 정치인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광주시 동구가 최근 주민(풍향·두암3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72%나 됐으며 중립 15%, 반대 12%였다.

송승준(50) 북구 두암주공 4단지 자치회장은 “구간 재정 및 사회복지비 격차가 커지면서 두암동은 북구의 적은 복지비 탓에 다른 구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편만 아니라 탈락자도 많다”면서 “정치인들이 선거와 지역구 관리를 위해 경제조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복지 차원에서 찬성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동구는 경제조정이 구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편입

대상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정치인들이 민관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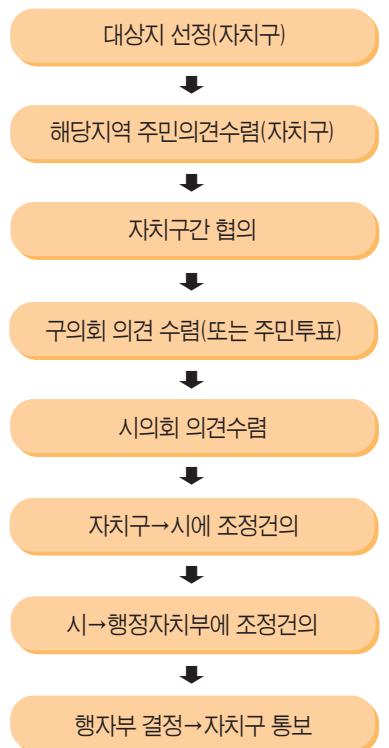
편입 형태의 경제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조정을 허용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를 동구에 요구하는 대신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도모 차원에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구간 경제조정을 위해서는 주민의 수렴을 통한 자치구간 협의와 구의회 및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야 한다. <끝>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 광주시 적극 개입을

■ 구간 경제조정 절차



광주시 ‘로봇랜드’ 유치 나섰다

산자부 추진 테마파크

광주시가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로봇산업의 테마파크인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를 뛰어들었다.

광주시는 “산자부로부터 추진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응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경기, 인천, 대전, 전남 등 10여 개 광역 지자체와 경기지역에 서단 안산시, 고양시, 화성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는 등 치

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로봇랜드는 20~25만평 부지에 3천억 원을 투입해 로봇놀이거, 로봇체험관, 상설전시관, 전용경기장, 유통관매장 등이 어우러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신규 투자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80여만 평에 달하는 어등산 관광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로봇랜드를 유치할 경우 연간 생산 유행효과 1천289억 원 외에 2천200여 명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남권 특별법 처리 마지막 기회

6월 국회 상정 오늘 결정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서남권 특별법)’의 6월 임시 국회 상정 여부를 20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남권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면 27일께 공청회를 거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후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남권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일정과 대신 정국에 돌입한 9월 정기국

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 참여정 부임기 내의 법 제정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초대개혁통합신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19일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남권 특별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조일현 건교위원장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서남권 특별법이 6월 국회에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모험을 대하는 여영 브랜드

(주) 조이트래블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일본

추천상품 1 (광주 출도착)

오감만족! 국내 최저가 일본 큐슈 순천 4일 289,000

- ▶ 출발일: 7월 3일
- ▶ 숙박: 아미나미 통나루 콘도
- ▶ 전 일일 노면 노움센 / 광주출·도착 기준 / 부산관광포함
-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 2 (광주 출도착)

통나루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4일 299,000

- ▶ 출발일: 7월 11일
- ▶ 숙박: 빌라형 통나루 콘도+뽕부전통온천호텔
- ▶ 노움센 / 광주출·도착 기준 / 가이드 팀 별도
-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 3 (광주 출도착)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4일 399,000

- ▶ 출발일: 7월 18, 19일
- ▶ 숙박: 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
- ▶ 전 일일 노면 노움센 / 광주출·도착 기준
-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온천과 전통문화를 즐기세요!!

등남아 - 광주출발 전세계 상품

세계 7대 불가사의

광주출발 고대의 신비와 감동

양코르왓!

상품	[특급] 양코르왓	[고급] 양코르왓		
코드	SRP-1	SRP-2	SRP-3	SRP-4
여행기간	4일	5일	4일	5일
7/21(5일)	8/18(5일)	899,000	1,009,000	
7/25(4일), 8/1(5일)	8/8(4일), 8/15(4일)	949,000	1,059,000	
7/28(5일)	8/11(5일)	989,000	1,099,000	

※ 공통항사항: 왕복항공권, 숙박비, 차비, 여행지인접로, 공항세, 전정보험료, 유류할증료, 여행보험, 기사/가이드 팀

※ 불포함사항: 캄보디아 도착비(사전결제), \$25(항공료), 생수비, 기타 개인 경비

※ 캄보디아 12만원/인 (그린비, 캐디비, 전동차 포함)

※ 비즈니스 왕복(8시): 16만원 추가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국 - 광주출발 전세계 상품 2

광주에서 출발하는

장사(장가계) 전세계 직항

2007년 6월 16일 ~ 11월 28일

"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사람이 태어날 때 장가계까지 안갔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젊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코드	상품명	여행기간	적용기간	출발일	상품가
KCZP-1	[장사/장가계] - 보통호 유람선, 천자산 케이블카	3박4일	6/16~7/13	수	549,000
KCZP-2	[장사/장가계/황석재] - 황석재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599,000
KCZP-3	[장사/장가계/천문산] - 천문산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639,000
KCZP-4	[장사 GOLF] (54H) - 청죽호C.C, 자산C.C, 옹호C.C	3박4일	6/16~7/13	수	699,000
KCZP-5	[장사 GOLF] (72H) - 청죽호C.C, 자산C.C, 옹호C.C, 청죽호C.C	4박5일	6/16~7/13	토	799,000

※ 공통항사항: 공항세, 출국세, 항공료, 현지항공료, 유류세, 1인당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항공): 단체비(10,000), 기사 가이드 봉사료 (1인당 10,000)

※ 불포함사항 (호텔): 단체비(10,000), 기사 가이드 봉사료 (1인당 10,000), 클럽하우스 중식, 캐디비, 클럽 클럽비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7월 14일~8월 15일, 9월 22일, 9월 26일, 10월 7일)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중국 1 - 전세계 상품

패키지 1 (광주 출발)

고구려 문화 유적지 탐방 CZ 4일 569,000

▶ (~7/13) 매주 금요일 출발

패키지 2 (광주 출발)

백두산/심양 CZ 4일 699,000

▶ (~7/13) 매주 금요일 출발

패키지 3 (광주 출발)

북경/백두산/심양 CZ 5일 839,000

▶ (~7/13) 매주 월요일 출발

※ 공통항사항: 공항세(10,000), 가이드 및 기사 팀 (1인당 10,000) 별도

※ 성수기(7월 14일~8월 15일, 9월 22일, 9월 26일, 10월 7일)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중국 2 - 대한항공 상품

패키지 1 (광주 출발)

상해/소주/항주 KE 4일 299,000

▶ 6월 20일 / 7월 4, 11일

패키지 2 (광주 출발)

상해/소주/항주/무석 KE 5일 319,000

▶ 7월 7, 14일

패키지 3 (광주 출발)

상해/장가계/원가계 KE 4일 719,000

▶ 6월 20, 27일 / 7월 4, 11일

패키지 4 (광주 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789,000

▶ 6월 23일 / 7월 7일

패키지 5 (광주 출발)

상해/항주/황산 KE 4일 649,000

▶ 6월 20, 27일 / 7월 4, 11일

패키지 6 (광주 출발)

상해/황산/항주/주자라 KE 5일 625,000

▶ 6월 23일 / 7월 7일

※ 공통항사항(패키지 2, 3는 별도 규정)

※ 비자(항공비(8,000), 가이드 및 기사 팀 (1인당 10,000) 별도

※ 성수기(7월 14일~8월 15일, 9월 22일, 9월 26일, 10월 7일)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어렵다면 여행이 서적되는 곳 조이트래블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4-130)

◆ 8인원 영인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업체 ◆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환) 1억원, 국내상환5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동차 / 전지역 ◆ 경비 (없음, 개인적인, 선배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출발인원 10명 이상

◆ 상의요금은 환불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을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